

공동체 소식



연중 제23주일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이로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 9/13(수):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학자 기념일,
- 9/14(목): 성 십자가 현양 축일,
- 9/15(금):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 9/16(토): 성 고르빌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

2017년 본당 야외미사에 수고하시고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본당 평일미사 및 신심미사 안내

- 평일 미사 : 화요일 - 저녁 7:30(성당), 수요일 - 저녁 7:30(성당), 목요일 - 오전 10:00(교육관).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9/16(토) 오전 11:30

애찬조 편성

- 내용 : 성당지하 주방 게시판 참조.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신심 깊은 사람은 삶의 일상의 경험 안에서, 계절의 순환 안에서, 땅의 비옥함과 세상의 모든 운동 안에서 하느님의 표지를 알아 보려고 애씁니다. 하느님께서 빛이시며,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이들은 그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빛’, 36항 | 그림 임의준 신부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46	513	174	431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 주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차 주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 안젤라	이우석 프란치스코 김인자 글라라
차 주	김대연 요셉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애찬 봉사자

금 주	정연숙, 박동희, 김명희
차 주	조경희, 박계숙, 박주연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병철 베네딕도, 이내익 베드로
차 주	김병철 베네딕도,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9/3	43명	165달러	-
(총0 세대)			

연중 제23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9월 10일

-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교육관)
-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3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영을 부어 주시어, 우리가 모든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계명에 충실하며, 형제들의 올바른 삶에 관심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그림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19-20)

두세 사람이든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다그쳐 바쳤던 아침, 저녁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남부럽지 않은 신앙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3,7-9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옆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3,8-10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15-20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쉐 마

참된 예언자의 소명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에제키엘에게 예언자로서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 곧 이스라엘 집안에 하느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에제 33,7) 이러한 소명 때문에 예언자는 언제나 하느님을 대신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 예언자가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지 않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악인의 파멸에 대한 책임은 예언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계속 악한 길에 머문다면 파멸의 책임은 악인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악을 저지르는 형제들을 타일러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마태 18,15-16) 이렇게 보니 제자들은 모두 에제키엘 예언자처럼 “공동체의 파수꾼”으로서의 소명,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악을 저지르는 형제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 악한 형제가 형제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타일러 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 공동체가 그를 타일러야 합니다. 만약 공동체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길 것인데, 그 탓은 모두 악한 사람 스스로가 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형제가 죄를 짓는 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척 지나쳐 버린다면 그 형제의 파멸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으로서의 소명, 곧 예언자적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이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는 제자들이 이끌어 주어야 할 삶, 곧 예언자적 소명으로 제자들이 인도해 주어야 할 하느님의 길이 무엇인지 잘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계명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며, 율법의 완성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

랑의 계명을 지키도록 불림을 받은 이들이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며 악을 저지르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권고하여 다시금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행해야 할 예언자적 소명입니다.

사실, 악한 형제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가 죄에서 돌아서도록 권고하는 이야말로 진정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악인 스스로 공동체를 떠나 파멸에 이르기를 바라고, 그래야 비로소 모든 정의가 바로 설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독서와 복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형제를 보았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그가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그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권고하는 사람만이 진정 사랑의 계명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사랑 가득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악한 형제가 마지막까지 악한 길을 걷는다면, 그 책임은 그 악한 형제가 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형제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형제가 회심의 길로 접어들도록 이끈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그 형제가 나에게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면 그를 용서하고 다시금 회심의 길에 접어들도록 만드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들이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회심을 청하고, 그들과 함께 다시금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파수꾼이 되라고 권고하십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화해의 삶을 추구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도록 권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할 교회의 참된 파수꾼, 곧 참된 예언자로서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리산책

연대(連帶)

“나이 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배척입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5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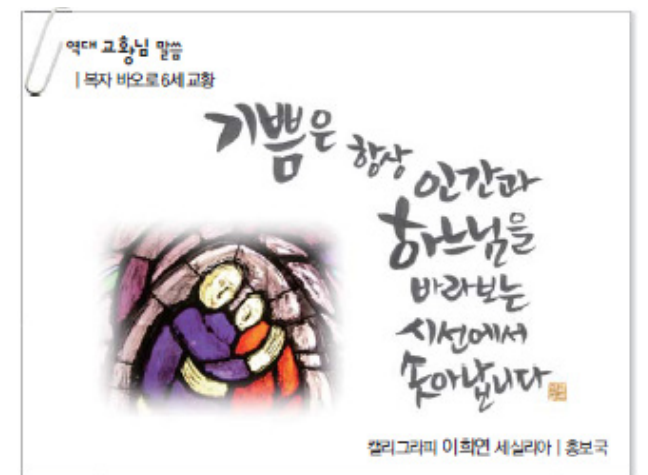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의 연대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계속 이어져야 하고, 마침내 모든 인간에게 다다라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과 이루는 일치, 그리고 모든 인간이 서로 이루는 일치의 표지요 도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모범에 따라 이 시대의 힘없는 이, 희생된 이, 가난한 이들과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모든 문화와 민족들에게 다가가시어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인간이 세상을 ‘인간적으로’ 가꾸려는 곳에 하느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느님의 구원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합니다.

어떤 인간도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대성은 인간의 타고난 사회적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대성은 사회 원리인 동시에 윤리덕이기도 합니다. 연대성은 사회 질서의 원리로서 ‘배타적 이윤 추구와 권력의 갈망’ 같은 ‘죄의 구조’(「사회적 관심」 36항)를 극복하고 사랑과 연대성의 문명을 일구는 데 기여합니다. 윤리덕으로서

의 연대성은 타인, 특히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한 구체적이고 단호한 개입을 의미합니다. 막연하게 동정심을 보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연대성의 원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이 속한 사회에 빛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를 것을 요구합니다.”(「간추린 사회 교리서」 195항)

예수님보다 더 연대적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은 인류 전체와의 연대를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타인을 위한 이러한 희생은 극진한 사랑과 연대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1코린 12,26)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



복음묵상

희망

노력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는 희망
내가 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희망

그 희망의 표현이 바로 노력입니다.
마음을 맞추어 보려는 노력
마음을 열고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
포기하지 않으려는 노력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마태 18,15)

